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연구*

김 두 섭**

이 연구는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개관하고, 1996년 인구센서스와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중국인 및 한국인 이민자의 증가추세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김씨 성을 가진 한국인의 숫자를 활용하여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규모를 추정하는 작업도 시도되었다. 이 논문의 초점은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적응형태를 설명하고, 화교사회와 한인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소수민족 이민자의 적응형태가 현지사회에의 참여수준과 문화정체성의 강약에 의하여 네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 분석틀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이 민족정체성이 강하며, 고유의 문화적인 전통과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활발한 현지사회진출에 비해서 한국인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활동영역과 민족적 울타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인들의 사회적 통합 및 문화정체성의 유지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인과 한국인들의 장기적인 문화변용의 전망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핵심단어 : 이민자, 사회문화적 적응, 소수민족사회, 캐나다의 이민정책, 문화정체성, 자발적 결사체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교수 해외파견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필자가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 방문교수로 체류하도록 도움을 주신 Yunshik Chang 교수께 감사드린다.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 머리말

캐나다는 현재 정책적으로 복합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내세워 세계의 모든 문화를 도입하고, 다양한 인종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화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Berry et al., 1977; Burnet, 19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 이민자들의 현지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응형태를 보면 인종에 따라서 뚜렷한 편차가 발견된다.

그러면 이민자들의 적응형태가 인종에 따라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민자들의 현지사회에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이민후 소수민족의 사회적 통합은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의 상실을 전제로 하는가? 이들의 문화정체성은 세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거나 유지되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캐나다의 밴쿠버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이다. 밴쿠버는 1980년대 중반이래 캐나다에서 아시아 이민자가 가장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이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구성비율은 1996년 현재 전체인구의 35%에 해당된다(Statistics Canada, 1997b). 밴쿠버는 인종구성에 있어서도 범태평양 복합사회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캐나다의 동양인 이민사와 이민정책을 개관하고, 인구센서스 및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밴쿠버에 정착한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의 증가추세를 분석할 것이다.

그런데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인구규모는 센서스를 비롯한 각종 통계자료에서 현저하게 과소추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김씨 성을 가진 한국인의 구성비율을 활용하여 밴쿠버 한인사회의 인구규모를 추정하는 작업이 시도될 것이다.

이 논문은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적응형태를 설명하고, 화교사회와 한인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두 민족의 적응형태가 왜, 그리고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가를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소수민족 이민자의 적응형태가 두가지 요인, 즉 현지사회에의 참여수준과 문화정체성의 강약에 의하여 네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 분석틀이 제시될 것이다. 그리고 생활양식, 언어, 종교 및 가치관에 대한 심층면접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고

유의 문화적인 전통과 생활양식을 유지하는가를 확인할 것이다.¹⁾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인과 한국인들의 문화변용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II. 캐나다의 이민사회

1. 밴쿠버의 개관

캐나다 태평양연안의 남단에 위치한 밴쿠버는 빼어난 자연조건과 온화한 기후를 갖춘 아름다운 항구도시이며, 주변에 삼림, 해양생물, 에너지, 광물 등의 천연자원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 밴쿠버에 정착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867년경으로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늦은 편이다. 밴쿠버는 1886년에 시로 개편되었으며, 1887년 몬트리올과 밴쿠버간의 대륙횡단철도의 완공으로 록키산맥 서쪽의 산림 및 광물자원을 원활히 유통시킬 수 있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밴쿠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광역밴쿠버(Greater Vancouver)²⁾는 1960년대말에 이르면 100만 인구를 갖춘 대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1986년 개척되었던 엑스포를 계기로 획기적인 자본투자가 이루어지고 물류유통산업, 관광산업 등에서 지속적인 도약이 이루어져 오늘날과 같은 국제도시로 성장하였다. 밴쿠버는 태평양시대의 도래와 함께 캐나다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최근에는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등 하이테크분야가 붐을 이루고 있으며, 1996년에는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The Korea Times,

1) 이 연구에서는 밴쿠버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의 생활양식과 문화변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인 13명과 한국인 26명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조사는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그리고 1998년 3월 2일 - 3월 7일의 기간에 실시되었다.

2) 광역밴쿠버(Greater Vancouver)는 밴쿠버시, 인접도시들과 주변의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일종의 광역시의 개념이다. 광역밴쿠버는 캐나다의 센서스에서 단일 대도시권(Census Metropolitan Area)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통계자료에서 하나의 대도시로 취급된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광역밴쿠버를 줄여서 밴쿠버로 지칭하기로 한다.

1997b).

지난 1996년 인구센서스에서 광역밴쿠버(Greater Vancouver)는 2,821km²의 면적에, 183.2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구규모로 볼 때,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토론토, 몬트리올에 이어 세번째의 도시이다. 밴쿠버는 1991-1996년 기간에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14.3%의 인구증가를 기록하였다(Statistics Canada, 1997a).

밴쿠버의 빠른 인구증가는 주로 이민자의 유입에 기인하는 것이다. 밴쿠버는 이민자의 증가추세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도시이다. 캐나다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1990년 이후 캐나다 이민자의 18%가 밴쿠버에 정착하였으며, 밴쿠버에는 1996년 현재 63.4만명의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Statistics Canada, 1997b).

이민자들의 출발지역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미국과 영국 등 유럽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국인, 인도인, 필리핀인, 한국인 등 아시안 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을 보면, 1991-1996년의 기간에 밴쿠버에 정착한 이민자의 10대 송출지역 중에서 상위 7개 지역을 포함한 8개 지역이 아시아 국가(또는 지역)이다. 특히, 홍콩, 대만, 중국 등 세지역으로부터의 중국인 이민자는 밴쿠버에 정착한 전체이민자의 29.7%에 해당하는 188,45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의 49.9%가 1991-1996년의 기간에 유입되었다. 또한, 투자이민의 문호를 개방한 이래 한국인 이민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밴쿠버가 한인교포 주요 거점도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표 1>에서, 한국인 이민자는 1991-1996년의 기간에 6,335명이 밴쿠버에 정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시안 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과적으로 밴쿠버의 아시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10여년간 밴쿠버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아시안 이민자들의 비중과 영향력은 급격한 신장추세를 보인다. 이제 밴쿠버는 더 이상 백인만의 사회가 아니며, 여러 인종이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범태평양 복합사회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

〈표 1〉 밴쿠버에 정착한 이민자의 출발지역별 규모

출발지	1991-1996년		1996년 현재	
	이민자	(%)	총이민자	(%)
홍 콩	44,715	(23.6)	86,215	(13.6)
중 국	27,005	(14.2)	72,910	(11.5)
대 만	22,315	(11.8)	29,330	(4.6)
인 도	16,185	(8.5)	53,475	(8.4)
필 리 핀	13,610	(7.2)	34,640	(5.5)
한 국	6,335	(3.3)	-	-
이 란	4,640	(2.4)	-	-
영 국	4,040	(2.1)	75,415	(11.9)
베 트 남	3,855	(2.0)	17,000	(2.7)
미 국	3,640	(1.9)	22,685	(3.6)
독 일	-	-	17,785	(2.8)
피 지	-	-	13,855	(2.2)
기 타	43,320	(22.8)	210,435	(33.2)
합 계	189,660	(100.0)	633,745	(100.0)

주 : - 해당연도의 이민자 10대 송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 Statistics Canada(1997b).

2. 아시안 이민자의 유입과 캐나다의 이민정책

캐나다는 1971년부터 복합문화주의를 채택하여 다양한 인종이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화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의 동양인 정착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인종차별이 상당히 심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1788년 중국으로부터 50명의 노무자가 캐나다 서부로 입국한 것이 아시아계 이민의 효시로 되어 있다. 그리고 1877년에는 일본인 이민자가 최초로 밴쿠버에 상륙하였다. 그 후 1850년대에 이르러 금광 붐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이 북상해 왔고, 1880년대 전반의 대륙철도 부설기간에

는 1.5만명에 이르는 중국인 노무자가 유입되었다. 금세기초 이민자들의 규모는 브리티쉬 컬럼비아³⁾ 전체인구의 10%에 육박하였던 것으로 추산된다(Baureiss, 1985).

이처럼 아시아계 이민이 늘어나자 캐나다에서는 이를 억제하거나 아시안 이민자를 차별하는 정책들이 취해졌다. 예를 들어, 1878년부터 중국인들은 공공부문에의 고용이 금지되었고, 매 3개월마다 거주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1886년부터 중국인들에게는 1인당 50달러라는 과중한 이민입국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일종의 인두세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중국인의 이민입국세는 그후 계속 증액되어 1903년에는 1인당 500달러로 되었고, 그 결과 중국인의 이민은 1947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두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 이민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르기까지 일부지역에서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투표권의 제한을 받기도 하였다. 일본인 이민자에게도 귀화 후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법령이 1895년에 통과된 바 있다(Baureiss, 1985).

이같은 법적인 차별 이외에도 1907년 밴쿠버에서는 동양인 배척을 표방하는 단체가 결성되었고, 아시안 이민자를 가학하는 인종폭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계2차대전 기간중 일본계 주민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막론하고 수용소에 격리수용 당하였다. 또한, 매니토바주와 BC주에 거주하는 동양인들은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학입학자격을 제한당하는 등의 차별을 받기도 하였다(Johnson, 1989).

캐나다에서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 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에 들어서이다. 온타리오주는 1951년에 임금평등법과 고용평등법을 제정하여 직장에서의 인종차별을 금하였다. 또한 1954년에는 주거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후 다른 주에서도 인종차별금지를 위한 입법조치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1960년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인권선언을 가결한 후부터 적어도 법적으로는 인종차별이 있을 수 없게 되었다(Baureiss, 1985; Johnson, 1989; 최협과 박찬웅, 1996: 226-227).

그렇다고 해서 이민자 특히 아시안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아직도 많은 아시안 이민자들이 발언이나 행동을 통한 인격모독을 당

3) 캐나다의 행정구역은 밴쿠버를 포함하고 있는 브리티쉬 칼럼비아주(BC주)를 비롯한 10개의 주(province)와 2개의 준주(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브리티쉬 칼럼비아라는 이름은 1858년 위도 49도 이북의 코딜러란 지역(Cordilleran mainland)이 영국 빅토리아여왕의 식민지가 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고, 취업 및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KKK단이나 헤리티지 프론트(Heritage Front)단 등 조직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에 의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아울러 증폭된 이민자의 유입을 강력범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전가시키려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매춘 및 마약 범죄조직과 관련된 중국계 및 라틴계 이민자의 범죄가 대중매체에 의해 과대포장되어 이민자 전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The Vancouver Sun, 1997).

그러나 밴쿠버는 이민자의 유입을 통해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이민자에 대한 관용도가 가장 높은 도시이다.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서 이민자에 대한 밴쿠버 주민들의 인식은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인이 아닌 이민자의 캐나다 유입금지를 찬성하는가에 대해서도 밴쿠버 거주자들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반대수치를 나타냈다(The Vancouver Sun, 1997).

캐나다의 이민정책은 1980년대초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된다. 당시 캐나다는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 있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가족결합이민과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하던 이민이외에 기업가(entrepreneurs), 투자자(investors), 자영업자(self-employed) 등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여 최소 1인 이상의 캐나다인을 고용하거나, 또는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제이민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⁴⁾

4) 경제이민의 하위범주와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민 :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할 사업체나 기업체를 설립 또는 매입하거나 상당한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인 자신 및 부양가족을 제외한 1인 이상의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도를 가진 자.

투자이민 : 자산 50만 달러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3가지 경우중 하나를선택할 수 있다: 1) 사업이민자(business immigrants)를 10% 미만 받아들이는 주에 최소 25만달러를 5년 이내 투자; 2) 사업이민자를 10% 이상 받아들이는 주에 50만달러 이상의 자산보유액중 최소 35만달러를 5년 이내 투자; 3) 70만달러 이상의 자산보유액중 50만달러를 캐나다 전지역을 대상으로 5년 이내 투자.

자영업이민 : 캐나다에 사업체를 설립할 능력과 의도가 있는 자로서 그 사업이 캐나다에서 자기 자신의 고용기회를 만들뿐 아니라 경제, 문화, 예술 또는 체육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자. 이 범주에는 소규모 사업가, 가족사업가, 예술가, 의사, 기사 등 자기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포함됨.

그후 캐나다 이민정책은 가족결합이민이나 인도적인 차원의 이민보다는 재산과 기술을 보유한 자를 위한 경제이민 위주로 점차 전환되었으며, 이에따라 이민의 규모와 성격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특히 밴쿠버와 BC주의 경우에는 아시안 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1996년 BC주로의 이민자 50,473명 중에서 80.3%에 해당하는 40,529명이 아시아로부터 유입되었다. 그리고 아시안 이민자의 68.9%인 27,923명이 경제이민의 범주에 해당되었다(Ministry of Finance and Corporate Relations, 1997a).

물론 캐나다에서 아시안 이민자의 증가속도를 늦추고자하는 정책적인 시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98년 1월에 발표된 이민법 개정건의안을 보면, 이민자격기준으로서 영어(또는 프랑스어)구사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의안이 그대로 법제화되면, 아시안 이민신청자들에게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밴쿠버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III. 밴쿠버의 화교사회와 한인사회

1. 중국인 이민의 추세와 성격

지난 1996년의 센서스에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전체인구의 3.0%에 해당되는 860,150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국인의 32.4%인 279,040명이 밴쿠버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밴쿠버 전체인구에 대한 중국인의 구성비율은 15.2%로 소수민족중에서 가장 높다(Statistics Canada, 1998).

밴쿠버의 화교사회는 다른 소수민족사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역사가 긴 편이다.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화교사회가 밴쿠버에 형성되었다(Johnson, 1979). 지난 19세기 중엽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중국인들은 주로 중국 남부의 광둥성

친척초청이민 : 경제이민의 기준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19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친척(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녀, 조카, 숙부모)이 되어 이들로부터 정착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

기타 독립이민 : 캐나다에서의 성공가능성을 측정하는 점수제도에 의하여 선택된 자.

(廣東省)에서 온 가난한 농부들이었다. 이들 초기 이민자들은 캐나다 서부지역의 철도건설과 석탄광산의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각종 차별과, 편견,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후 캐나다가 중국인의 후속이민을 억제함에 따라 화교사회는 194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남녀인구의 성비가 극단적으로 불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지속되었다.⁵⁾

중국인의 이민은 1950년대에 들어와 재개되어, 홍콩,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각국에 거주하던 화교들이 밴쿠버로 대거 유입되었다. 특히, 중국이 문화혁명(1966-1976년)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자 홍콩으로부터의 이민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의 중국인 이민자들은 초기이민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이 도시 출신으로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재산을 갖추고 있었으며, 전문직 종사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밴쿠버의 중국인 이민사에 있어서 1980년대 중반은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지난 1984년 중국과 영국이 홍콩을 1997년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자 홍콩인들은 그들의 장래에 불안을 품게 되었다. 많은 홍콩인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을 안전한 장래가 보장되는 곳으로 옮기고자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밴쿠버에 대한 중국인들의 투자를 선도한 사람은 홍콩의 거부 리카싱(李嘉誠)이다. 그는 1988년에 1.45억달러를 투입하여 1986 엑스포가 열렸던 밴쿠버 항만(False Creek) 주변의 부지 82.5만㎡를 매입하고, 다른 화교 거부들과 함께 엄청난 투자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바로 중국인들의 이민행렬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9년의 천안문사태는 홍콩인들에게 홍콩반환 이후에 대한 불안감을 극도로 고조시켰다. 바로 다음날 홍콩의 주식시장은 사상초유의 폭락을 경험하였고, 20여만명의 홍콩인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중국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였다. 동시에 많은 홍콩인들이 캐나다를 비롯한 외국의 영사관에 몰려가 이민을 신청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92년에 BC주로 이민해 들어온 홍콩인은 9,614명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이는 1989년 이민자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리고 이들의 절대다수(94%)가 밴쿠버에 정착하였다(Statistics Canada, 1997b). 당시 이민수속에 소요되는 기간이 3년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대부분은 천안문사태

5) 예를 들어, 1931년 밴쿠버를 포함하는 BC주에 거주하던 중국인 남자는 24,900명에 달하였으나 여자는 2,239명에 불과하였다(Johnson, 1979).

〈표 2〉 캐나다 BC주로 입국한 이민자의 출발지역별 규모, 1991-1996

출발지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홍 콩	6,271	9,614	11,288	16,159	11,807	12,180
중 국	3,490	2,139	2,175	2,998	3,247	4,246
대 만	2,610	3,961	5,932	4,755	5,327	9,284
인 도	3,513	3,176	6,036	5,530	5,158	6,048
필 리 핀	1,896	2,369	3,726	3,787	3,313	2,988
영 국	1,451	1,064	1,530	1,366	1,375	1,208
미 국	1,313	1,407	1,715	1,352	1,187	1,196
이 란	1,056	780	-	-	-	1,280
베 트 남	1,054	908	936	826	-	-
피 지	779	1,100	724	-	-	-
한 국	-	-	820	880	1,140	1,000
남아프리카	-	-	-	1,267	762	-
독 일	-	-	-	-	777	845

주 : - 해당연도의 이민자 10대 송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 The Weekend Sun(1997).

직후 이민을 신청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홍콩인 이민자들의 급격한 증가추세는 16,159명이 이민해 들어온 1994년까지 이어졌다.

〈표 2〉를 보면, 1995년 이후 BC주로 이민은 대만인은 홍콩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다. 대만인 이민자의 규모는 1991-1996년의 기간에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여 1996년에는 9,28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BC주 전체 이민자의 18.4%에 해당된다. 이같은 대만인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추세 역시 대만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대만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번영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자유화, 민주화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1996년 대만의 총통선거가 최초로 실시되자 중국은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며,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재천명하였다.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은 많은 대만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장래에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으며, 이는 캐나다로의 이민신청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국으로부터 캐나다로의 직접이민이 다시 활발해진 것은 1974년 이후이다 (Johnson, 1989). 〈표 2〉는 중국어 캐나다 BC주로의 이민자 송출규모에서 항상 3-5

〈표 3〉 캐나다 BC주로 입국한 중국인 이민자의 이민형태 및 출발지별 규모, 1993-1996

이민형태	1993	1994	1995	1996			
				홍콩	대만	중국	합계
가족결합이민	4,483	4,998	4,759	1,819	413	1,091	3,323
경제이민	11,427	15,165	15,330	10,282	8,842	2,409	21,533
기업이민	2,745	2,906	2,241	1,865	962	101	2,928
투자기민	5,983	5,449	2,647	1,404	1,388	140	2,932
자영업이민	294	389	505	366	597	33	996
친척초청이민	1,056	3,519	5,433	4,072	1,434	350	5,856
기타 독립이민	1,349	2,902	4,504	2,575	4,461	1,785	8,821
난민 및 망명	44	22	158	8	-	745	753
은퇴자이민*	3,441	3,727	134	71	29	1	101
합계	19,395	23,912	20,381	12,180	9,284	4,246	25,710

주 : * 은퇴자이민은 55세 이상으로서 정부의 도움없이도 캐나다에서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을 소유한 자에게 허용되었다. 이 범주는 1991년 8월부터 없어졌으며, 이 표에 포함된 은퇴이민자들은 그 이전에 이민수속을 밟기 시작했던 사람들이다.

자료 : Ministry of Finance and Corporate Relations (1997a, 1997b), Ministry of Government Services (1994, 1995, 1996).

위 수준을 유지해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천안문사태 직후에는 난민이나 망명의 형태를 포함하여 많은 이민자들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이민은 그후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1993년 이후에는 다시 급격히 증가하여 왔으며, 1996년에는 4,246명으로 집계되었다.

캐나다의 BC주는 중국계 이민자 이외에도 인도, 필리핀, 한국,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들로부터도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 아시아 4개 국가들로부터 BC주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규모는 1993년 이후 매년 1만명이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이래 캐나다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3년부터는 BC주로의 이민자 10대 송출지역에 들게 되었다.

〈표 3〉에는 BC주로 입국한 중국인 이민자들의 이민형태별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가족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로 오는 중국인 이민자의 규모는 1996년에 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중국인 경제이민자의 규모와 구성비율은 급격

히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친척초청이민과 기타 독립이민의 신장추세는 두드러진다. 전체이민에 대한 경제이민의 구성비율은 1996년 현재 83.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3>에서 중국인 투자이민자의 수가 1995년부터 대폭 감소한 것은 투자이민의 조건을 갖추면서 동시에 캐나다에 거주하는 친척으로부터 정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들이 친척초청이민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인 이민자의 이민형태별 규모는 이민의 출발지에 따라서 커다란 편차를 보인다. 중국으로부터의 이민은 가족결합이민의 비율이 25.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난민과 망명자의 구성비율도 17.6%에 이른다. 이에 비해 홍콩과 대만의 경우에는 경제이민이 압도적으로 많다. <표 3>에서 1996년의 경우, 홍콩 이민자의 26.8%, 그리고 대만으로부터의 이민자의 25.3%가 기업이민과 투자이민의 형태로 BC주에 이민온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친척초청이민자 중에서 기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합하면 그 구성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홍콩과 대만으로부터의 이민자를 통하여 유입된 투자기금은 1986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40억달러가 조성된 캐나다의 이민투자기금(Immigrant Investor Fund)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The Weekend Sun, 1997).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홍콩으로부터 이민와서 밴쿠버에 정착한 후기이민자들은 대체로 부유한 계층에 속한다. 대만으로부터의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을 유지하고자 캐나다로 이민왔다는 점에서,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여 캐나다로 온 이전 이민자들과는 생활양식이나 소비행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0여년간 밴쿠버 최고주택가 저택들의 대부분이 홍콩과 대만으로부터의 후기이민자들에 의해서 매입되었다(Time, 1997). 또한, 홍콩으로부터의 후기이민자들 중에는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후, 가족들을 밴쿠버에 남겨두고 홍콩으로 돌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2. 한국인 이민의 특성

한국과 캐나다가 국교를 맺은 것은 1963년이다. 그 이전에 캐나다에 이민온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은 캐나다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입국한 목회자들이나 유학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초기이민자들의 회고에 의하면, 1964년 밴쿠버의 한인 교포는 50여명에 불과하였다.

〈표 4〉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추세, 1980-1994

연도	한국인 이민자	캐나다 총이민자	(%)
1980	957	143,117	0.7
1981	1,430	128,618	1.1
1982	1,510	121,147	1.2
1983	1,018	89,157	1.1
1984	801	88,239	0.9
1985	934	84,301	1.1
1986	1,143	99,219	0.9
1987	2,276	152,098	1.5
1988	2,676	161,927	1.7
1989	2,809	189,956	1.5
1990	1,863	214,320	0.9
1991	2,475	230,781	1.1
1992	3,683	252,842	1.4
1993	3,585	254,321	1.4
1994	2,915	230,000	1.5

자료 : 외무부(1995: 148).

한국은 빠른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1962년부터 해외이주를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캐나다가 1966년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선포하면서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한국인의 이민은 캐나다가 1983년 투자이민 제도를 시작하고, 1986년에 기업이민을 확대하면서 크게 늘어났다.

〈표 4〉는 1980-1994년 기간의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추세를 보여준다. 한국인 이민자는 1980년에 957명으로 캐나다 총이민자의 0.7%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민자가 가장 많았던 1992년에는 3,68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총이민자에 대한 구성비율도 1.4%로 두배로 늘어났다. 이 표에서 1984년과 1985년에 한국인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캐나다의 총이민자수가 적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83년부터 시작된 캐나다 투자이민과 기업이민의 신청자들이 이민허가를 받기 시작하는 1986년 이후에는 이민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한편, 1990년과 1991년에 이민자가 줄어든 것은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과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이민신청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5〉 캐나다 BC주로 입국한 한국인 이민자의 이민형태별 규모, 1993-1996

이민형태	한 국 인 이 민 자			
	1993	1994	1995	1996
가족결합이민	113	86	63	71
경제이민	707	794	1,077	926
기업이민	359	327	456	334
투자이민	207	109	118	130
자영업이민	34	36	52	20
친척초청이민	45	66	64	63
기타 독립이민	62	256	387	379
난민 및 망명	-	-	-	3
합 계	820	880	1,140	1,000

자료 : Ministry of Finance and Corporate Relations (1997a,1997b), Ministry of Government Services (1994, 1995, 1996).

그동안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은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에 정착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최근에 들어서는 토론토, 몬트리올 등 동부지역보다는 BC주의 밴쿠버와 알버타주 등 서부지역에 대한 이민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캐나다 이민후 BC주에 정착한 한국인 이민자의 점유율은 1992년에 18.4%로 집계되었으나, 1993년과 1994년에는 각각 22.9%와 28.2% 현저히 높아졌다(외무부, 1995: 150). 밴쿠버에 한국인 이민자가 몰리는 요인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모국과 가깝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아시아 소수민족사회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의 성격은 이민형태별 규모를 보면 자명해진다. 지난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가족초청이나 국제결혼에 의한 연고이민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투자이민과 기업이민을 포함하는 경제이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김두섭, 1997). 〈표 5〉에서 캐나다 BC주로 입국한 한국인 이민자들의 이민형태별 규모를 보면, 가족결합이민은 현저히 감소하여 1994년 이래 90건에 미달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전체이민에 대한 경제이민의 구성비율은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94.5%와 92.6%이었다.

밴쿠버를 포함한 BC주 이민의 특징의 하나는 최근 하이테크 분야를 포함하여 각종 전문직종사자들의 취업이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캐나다 이민국의 통계에서 취업이민은 기타 독립이민으로 분류되며, <표 5>에서 기업이민과 함께 경제이민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투자이민은 1993년에 207명을 기록한 이래 1994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다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인다. <표 5>에서 자영업이민은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6년의 경우 20명에 불과하였다.

현재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이민시기와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대략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는 캐나다가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선포한 1966년 이전에 캐나다로 와서 밴쿠버에 정착한 초기이민자들이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해외이주를 장려하기 이전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다. 이들중에는 캐나다의 선교사를 통하거나 유학생으로 입국한 후 이곳에 정착한 목회자와, 의사, 그리고 학자가 많다. 초기이민자들은 대부분이 은퇴한 고령층이며 그 수가 별로 많지 않다.

둘째는 캐나다 이민의 문호가 개방된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 사이에 이민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다. 이들중에는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 정착해서 살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밴쿠버로 이동해온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해외이주정책에 따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으로 이민을 갔다가 캐나다로 다시 이주해온 사람들도 있다. 이들중에는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다.

셋째는 투자이민과 기업이민제도가 활성화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캐나다에 온 후기이민자들이다. 이들은 이전의 이민자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부유하고 교육수준도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들중에는 캐나다에 영주할 목적이 아니라, 단지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녀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밴쿠버로 이민 온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이민 온 이후에도 한국에 생활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들 또는 부인과 자녀들을 밴쿠버에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가 지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한, 후기이민자에는 한인교포를 주대상으로 하는 의사, 한의사, 약사, 전자 관련업 등의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상 세 범주의 이민자들은 이민시기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그 특성을 뚜렷이 달리 하기 때문에 서로 접촉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은 물론 거주 지역도 뚜렷이 격리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밴쿠버의 한국인들은 같은 범주에 속하는 이민자들끼리 취미활동이나 학연, 지연을 바탕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교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한국인 인구규모의 추정

어느 사회 또는 사회내 특정 집단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인구규모의 파악은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밴쿠버 한인사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우선 인구규모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센서스나 각종 공식자료에서 소수민족의 인구규모는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다(Siegel, 1975, 1979).⁶⁾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 인구의 규모도 센서스를 비롯한 각종 통계자료에서 현저하게 과소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996년 센서스에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64,835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그중 26.3%에 해당되는 17,080명이 밴쿠버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tatistics Canada, 1998). 참고로, 한국정부는 1997년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교포가 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The Korea Times, 1997a).

한국인규모 과소추정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1996년 센서스에서 이민과 시민권에 관한 조사는 20%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표본추출과정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은 실제 구성비율보다 표본에 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캐나다 이민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 및 이민 2세대나 3세대의 일부가 센서스 조사에서 스스로를 한국인이 아니라 캐나다인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센서스조사에서 유학생, 연수생, 파견자와 그 가족을 비롯한 비영주거주자들의 상당 부분이 배제되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들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구에 대한 김씨 성의 구성비율을 활용하는 방법이 시도되었다(Shin and Yu, 1984).⁷⁾ 추정에 사용된 등식과 그 구성인자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 예를 들면, 캐나다의 1996년 인구센서스에서 원주민(인디안, 메티스, 이누이트)의 인구규모는 80.5만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캐나다의 원주민을 대표하는 각종 단체들은 원주민의 인구규모가 13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The Vancouver Sun, 1998a).

7) 한국의 다른 주요 성씨중 이씨는 중국인에게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한인만을 구분해내기가 곤란하다. 최씨의 경우에는 영문표기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인의 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나머지 성씨들은 그 구성비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추정의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N = (k/p)(m/(l \cdot l_2))$$

여기서 N = 밴쿠버 한국인 인구의 추정규모;

k = 김씨 성을 가진 가구의 수;

p = 김씨 가구의 구성비율;

m = 김씨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l = 김씨 가구중 거주지에 전화를 가진 가구의 구성비율;

l_2 = 거주지에 전화를 가진 김씨 가구의 전화번호부 등재율.

한국인에게서 김씨 성은 가장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지역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구성비율의 편차도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김씨 성을 가진 밴쿠버 거주가구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1997년 8월에 발간된 밴쿠버의 BC TEL 전화번호부를 활용하였다. 이 전화번호부에는 1,377명의 김씨 성을 가진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k = 1,377$).

한국의 1985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전체인구중 김씨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은 21.7%이다. 김씨의 구성비율은 가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역시 21.7%인 것으로 밝혀졌다(조사통계국, 1987). 김씨의 구성비율은 이를 각 도별로 집계해 보아도 뚜렷한 편차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의 1995년 인구센서스에서 집계된 도시지역의 평균 가구원수는 3.4명이었다(통계청, 1997). 이 연구에서는 이같은 값들이 밴쿠버의 한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p = 0.217$, 그리고 $m = 3.4$ 로 하였다.

BC TEL 전화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밴쿠버 지역의 전화보급율은 98%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민자에게 있어서 전화는 정착과 사회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전화소지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단기체류자의 상당 부분이 거주지에 자신의 이름으로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l = 0.98$ 로 가정하였다.

그런데 전화번호부에는 사생활의 보호 등을 이유로 번호등재를 원치않는 사람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전화번호부의 출판이후 전화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도 제외되어 있다. 한국인중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인한 등재누락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화번호부 등재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한인회 인명록 등 각종 자료와 전

화번호부에 등재된 한국인 이름을 대조하여 누락정도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토대로 $b = 0.95$ 로 가정하였다.

이상 살펴본 구성인들의 값을 위의 등식에 대입해보면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추정규모가 23,174명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공식통계를 통하여 확인되는 한국인 규모의 1.4배에 해당된다. 물론 이 추정규모는 단기체류자와 미혼유학생의 상당 부분, 전화번호부 출판 이후의 이민자, 그리고 관광객을 배제한 상태에서 구해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밴쿠버 한인사회의 인구규모가 3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V.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의 적응

1. 사회참여와 문화정체성

일반적으로 소수민족 이민자는 그 사회의 중심문화를 받아들이고 다른 인종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필요로 한다. 밴쿠버의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 역시 이 과정에서 캐나다의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처럼 복합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인종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서로 화합하도록 유도되며, 따라서 소수민족이 현지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Berry(1987)는 복합사회에서 특정 인종집단의 문화변용이 다음의 두가지 질문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다른 인종이나 종교집단과의 관계유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이나 관습의 유지에 대하여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가? 그는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한 반응을 교차시켜 문화변용의 형태를 네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의 초점을 밴쿠버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적응형태에 맞추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분석틀은 기본적으로 Berry(1987)의 논의를 변용시킨 것이다. <표 6>에는 소수민족 이민자의 적응형태가 두가지 요인, 즉 현지사회에의 참여수준과 문화정체성의 강약에 의하여 통합, 고립, 동화, 주변화의 네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 분석틀이 제시되어 있다.

〈표 6〉 사회참여와 문화정체성의 수준에 따른 소수민족 이민자의 적응유형

		문 화 정 체 성	
		강	약
사 회 참 여	강	통 합	동 화
	약	고 립	주변화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소수민족 이민자집단이 현지사회에의 참여가 활발하고 문화정체성이 강하면, 이들의 적응형태는 통합(integration)이 된다. 이는 소수민족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민자들이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통하여 현지사회의 한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적응형태가 이에 해당된다. 통합의 형태로 적응하는 소수민족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모자이크와 같은 복합적인 문화구조를 지니게 된다.

만약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활발한 사회진출을 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약하거나 또는 능력이 부족하면, 이러한 소수민족은 현지사회에 동화(assimilation)되어 점차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수민족의 동화는 주류민족집단에 흡수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다양한 민족집단들이 용해되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민으로 거듭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민을 하나의 새로운 민족으로 융합시키고자 미국이 추진해온 용광로(melting pot)정책은 각 민족집단의 동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한편, 소수민족 이민자집단이 사회참여를 활발히 추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면, 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isolation)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경우에 소수민족사회는 현지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던가 또는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민족적 울타리(ethnic enclave)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이 이민후 현지사회 및 다른민족과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하고, 폐쇄적인 활동영역을 유지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소수민족

이 문화적인 차이나 언어구사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지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때문이다. 밴쿠버의 한인사회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소수민족 이민자집단이 다른 민족집단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격리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 적응형태는 소수민족 이민자집단이 자신들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현지사회에의 참여도 미미하여 주변화(marginalization)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민족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민족의 하위계층으로 흡수되거나, 또는 반대로 배척당하기도 한다. 이민자 소수민족이 현지사회의 강요에 의하여 주변화되는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인구규모가 작은 소수민족은 궁극적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이 밴쿠버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의 사회진출상황, 사회경제적 특성, 생활양식 및 문화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두 민족간에 관찰되는 사회문화적 적응의 차이와 관련해서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2. 중국인 이민자의 사회진출과 문화적 적응

지난 1997년 8월 밴쿠버에서는 전세계 90여개국에 흩어진 3,500만 화교들의 큰 잔치라 할 수 있는 제4회 세계화상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싱가포르 전총리 리관유의 주창으로 1991년 싱가포르에서 첫회의가 열린 뒤 홍콩(1993년)과 방콕(1995년)에서 개최된바 있다. 이 대회가 화교들의 본거지인 동남아시아를 벗어나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은 이곳에서 화교들의 사회진출이 매우 활발하고, 밴쿠버가 화교거점도시로 자리잡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규모 이민의 결과로 광역밴쿠버내의 일부 지역에서 중국인은 소수민족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규모가 성장하고 그 구성비율이 높아졌다. 예를 들면, 리치몬드(Richmond) 지역의 인구는 1996년 센서스에서 148,867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중에서 30,565명이 1991년 이후에 정착한 이민자들이다. 그리고 이들 이민자의 74.2%에 해당되는 22,665명이 홍콩, 중국 및 대만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Statistics Canada, 1997a, 1997b).

주말에 리치몬드의 애버던센터(쇼핑몰)에 가보면 자신이 캐나다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된다. 오가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아시안들이며, 눈에 띄는 백인은 수줍음 많은 아시안 어린이들에게 풍선을 나누어 주도록 고용된 광대뿐이다. 이곳의 점심 식당은 홍콩의 쿨롱과 마찬가지로 북적거린다. 서점과 비디오 가게들의 요란한 광고는 한자 일색이며 영어표기가 보이지 않는다. 퀸엘리자베스 공원에는 아침마다 타이치를 수련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밴쿠버의 전화번호부를 보면, Chan이나 Wong과 같은 중국 성씨가 Smith나 Jones보다 더 많이 등재되어 있다(Time, 1997).

밴쿠버에 정착한 중국인 이민자들의 직업을 보면 기업인, 투자가, 정치인, 의사, 예술인, 연예인 등 각종 직업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중국인들은 막강한 재력과 특유의 밀접한 사회적 '관계(guanxi)'를 십분 활용하여 사업규모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밴쿠버의 상권을 일시에 장악하였다. 또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현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막강해지고 있다. 특히 홍콩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은 영어사용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사회진출이 두드러지고, 이에 따라 상승이동도 빠른 경향을 보인다(Time, 1997; The Weekend Sun, 1997).

중국인 이민자들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상승이동의 결과로 오늘날 밴쿠버 지역사회의 지도층이나 상류층의 상당 부분은 중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환경, 봉사단체에서 중국인 유력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인중에는 이민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를 각종 문화사업과 교육단체에 희사하여 화교사회는 물론 밴쿠버 지역사회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밴쿠버 인근의 여러 대학에 가보면 중국인 이민자의 이름을 딴 연구소나 건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밴쿠버 시내에는 중국인의 이름을 붙인 공원(David Lam Park)도 있다. 밴쿠버를 포함하는 BC주의 지난번 부주지사는 중국인 이민자 1세이었다.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현지사회에의 문화적 동화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다(Breton et al., 1990). 그러나 이러한 명제는 밴쿠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이들은 활발한 현지사회참여와 동시에 고유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는 통합된 적응형태를 보이고 있다. 밴쿠버의 중국인들이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같은 사실들로 뒷받침된다.

우선, 이들의 생활양식을 보면, 이민전 고향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국인 이민자들이 캐나다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문화변용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일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인들의 종교의식이나 조상숭배의 행태는 이민후 밴쿠버의 새로운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밴쿠버의 중국인들이 기본적으로 고유의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연구를 위해 행해진 심층면접조사에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민후의 의식주생활과 가치관이 홍콩,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화교사회에서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밴쿠버의 화교사회에서는 중국인들의 전통적인 명절, 풍습, 의례, 그리고 민족정체성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년 음력설에는 차이나타운에서 다양한 민속행사를 개최하여 중국문화를 과시하고 화교사회의 결속과 민족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호랑이해를 경축하는 1998년의 풍물퍼레이드는 동원된 인원만 1,700명이 넘는 대규모의 행사였다(The Vancouver Sun, 1998b).

만약 문화를 상징의 체계라고 간주한다면 언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소수민족의 문화변용은 고유언어의 유지 여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Herberg, 1989). 세계 도처의 화교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밴쿠버의 중국인들도 출신지역에 따라 갖가지 방언을 사용한다. 이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경제활동의 일부분에 국한된다. 지난 1996년 센서스결과에 의하면,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중국어라고 응답한 중국인이 630,250명에 이른다. 이는 1996년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73.3%에 해당된다. 반면, 일상생활에서 중국어보다 영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중국계 가정의 비율은 16.0%이었으며, 그 대부분이 홍콩으로부터의 이민자로 밝혀졌다(Statistics Canada, 1997c). 이는 결국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활발한 현지사회 진출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언어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민족 고유의 대중매체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도 소수민족이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재 밴쿠버에는 화교들을 위한 종합일간지가 3개, 라디오 방송국이 3곳, 그리고 TV 방송국이 2곳이 있다. 이외에 주간지나 잡지 형태의 인쇄매체는 그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화교사회는 이처럼 다양한 대중매체를 바탕으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여론을 조성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세력집단으로서의 힘도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인들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중국계 대중매체들의 영향으로 중국문화가

밴쿠버의 대중문화를 부분적으로 잠식하는 현상마저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밴쿠버에서는 중국인의 생활 및 행동양식, 종교적 믿음과 의식, 가치관은 더 이상 생소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중국인들의 자발적 결사체

지난 19세기 중반이후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중국인 초기이민자들은 쌀재배 이외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캐나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현지사회의 차별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회계층구조의 맨 밑바닥에서 상승이동의 기회를 봉쇄당한채 거주자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자, 많은 중국인들이 좌절과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편, 도박과 매춘에 빠져 들었다. 그리고 이들이 밀집되어 거주하던 지역은 게토(ghetto)화 되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차별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친족이나 성씨, 사용하는 방언, 중국내 출신지역, 그리고 직업 등에 따라서 다수의 자발적인 결사체를 결성하여 상호부조하고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국인자선협회가 1884년 빅토리아에 결성된 것을 효시로 이러한 움직임은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1910년대에 들어오면 밴쿠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다양한 결사체들이 결성되고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다(Johnson, 1979, 1989).

중국인들은 이러한 결사체를 통하여 차별적인 법과 제도에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그들의 세력을 키워나갔다. 이러한 결사체들은 상호부조, 취업알선, 구호활동뿐만 아니라 범죄, 아편, 도박과 매춘을 스스로 단속하는 등 화교사회를 통제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중국내 가족에게의 송금이나 유골송환 등 고향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자발적 결사체들의 이러한 성격과 기능은 1950년대에 들어와 중국인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 차별이 완화되고, 세계 여러 지역으로부터 다양한 속성의 중국인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변화하게 된다. 우선, 회원가입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이 되었고, 그 프로그램과 역할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아울러 화교사회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고, 일종의 사교클럽화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자발적 결사체들이 새로운 이민자의 초청이나 정착과정에서 도움을 주던 역할도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이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74년 밴쿠버에 거주하던 중국인의 74%가 가족이나 친족의 초청으로 이민온 것으로 조사되었다(Johnson, 1979). 이러한 사실은 1960년대 이후 홍콩과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중국인 이민자의 대부분이 초기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남부 지역출신이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중국인들은 혈연관계에 대한 집착이 유달리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인들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은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국인 기업에는 가족회사가 많으며, 사업활동에 있어서도 가족이나 친인척의 연결망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Cheng, 1995; Limanonda와 김두섭, 1997). 금세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자발적 결사체들의 기능이 축소되자,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각종 생활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가족과 친족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자발적 결사체의 이같은 역할축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결사체와 각종 위원회를 결성하여 화교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전통을 이어나갔다. 아울러 이러한 조직들이 중국인들의 현지사회진출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와 복합문화주의가 채택되고 중국인들도 고유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도록 권장되면서, 화교사회에서는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가 결성되고 번창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자발적 결사체가 활성화되면, 해당 사회를 결속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문화를 계승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동남아시아의 여러나라에서 화교들이 결성한 상공회의소, 그리고 친족, 방언과 출신 지역을 바탕으로 한 화교들의 각종 결사체를 들 수 있다(Cheng, 1995; 김두섭과 김명수, 1997). 동남아시아의 화교사회에서 이러한 결사체들은 새로운 중국인 이민자들에게 의식주 및 일자리 제공은 물론 교육, 의료, 장의, 사회보장 등 정부가 담당해야할 기능까지도 충족시켜 주었다. 그리고 화교 사업체들을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중국인의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문화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해 온 것으로 널리 인정된다.

밴쿠버에서 중국인들의 문화행사는 대부분 중국인자선협회, 중국문화센터, 차이나타운 상인협회, 중국인 이민자후원회 등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조직하고 치루어 낸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조직된 중국인들의 자발적 결사체들은 화

교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경제적 기회의 제공 못지않게 종교의식, 조상숭배, 사회복지, 사회봉사, 문화활동 등 사회문화적 기능에 중점을 두어왔다. 중국인 이민자들이 밴쿠버에 정착하여 활발한 사회진출과 함께,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들에 결정적으로 기인하는 바 크다.

4. 한국인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밴쿠버 한인교포들의 생활은 대체로 안정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중국인 이민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민족과의 관계나 현지사회에 대한 참여는 소극적인 편이다. 이민 1세대중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현저한 진출자는 별로 많지 않다. 그리고 이민역사가 짧아 대부분의 이민 2세대들이 연령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밴쿠버 한국인들의 직업분포를 보면, 식품이나 잡화를 취급하는 자영업 종사자가 가장 많다. 그리고 사업의 규모는 5명 이하의 고용인을 둔 소규모 가족기업(family business)에 속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1997년 현재 한인실업인협회에 등록된 식료잡화점만도 215개소에 달한다. 중대형의 동양식품점도 21개소에 이른다.

대부분의 경우 소규모 식료잡화점은 긴 영업시간을 수반하며, 가족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때문에 식료잡화점을 일정 기간 운영하여 경제적인 기반이 잡힌 후에는 그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다른 업종의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주요 전환업종으로는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가족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커다란 자본이 없이도 가능한 세탁업, 구두수선업, 의류수선업 등을 들 수 있다.

밴쿠버의 한인사회에서 전문직이나 사무직 종사자의 비중은 아주 낮은 편이다. 한국인 이민자들은 교육수준이 매우 높다. 한국에서 전문직종이나 사무직종에 종사하던 이민자의 구성비율도 높다. 최근에는 한국으로부터 기술이민의 형태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의 전문자유직 종사자들이 밴쿠버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화이트 칼라의 경우에는 밴쿠버 정착후 언어의 제약과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민 이전의 직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인사회의 생업구조는 1990년대에 들어와 밴쿠버 관광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한국인 및 아시아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관광 및

여행관련업, 식당, 유흥업소도 지난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다.⁸⁾ 그러나 1997년 후반 이후 한국과 아시아 몇몇 나라의 경기침체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한인업소에도 불황이 닥치고 전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밴쿠버의 한인교포들은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서 소규모 가족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활동영역과 민족적 울타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언어의 제약과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활동의 비중이 높다는 것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무역 등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거래선은 한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한인사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교민, 유학생, 그리고 각종 체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 유아교육학원, 자동차관련업, 여행업 종사자가 많아졌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밴쿠버의 한인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집단은 1980년대 중반이후 투자 이민과 기업이민의 형태로 캐나다에 온 후기이민자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표면상으로 유통업, 부동산업이나 무역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기보다는 한국에서 가져온 재산을 바탕으로 골프, 여행 등 여가생활로 소일하는 이민자도 많다. 그리고 이들은 이민후 현격한 지위불일치(status inconsistency)와 소외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다.

밴쿠버 한인사회의 특징중의 하나는 자발적 결사체가 별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⁹⁾ 한인교포 전체를 대상으로 삼거나,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한국인들

8) 한국으로부터 밴쿠버로 입국한 관광객수는 1990년에 1.1만명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에는 8.5만명으로 8배나 늘어났다. 그리고 1996년 관광목적으로 BC주로 입국한 140만명(미국인 제외) 중 아시아국가로부터의 관광객이 2/3를 차지하였다(The Korea Times, 1997c).

9) 현재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인교포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대표적인 한인단체로 밴쿠버한인회와 한인노인회를 들 수 있다. 밴쿠버한인회는 1966년에 설립된 최초의 한인단체이며, 1996년 현재 2,576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한인노인회는 1976년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그 역사나 등록된 회원수에 비해 대표성이 약하고 활동도 제한되어 있어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초기와 후기이민자들의 참여는 아주 미미한 편이다. 현재 밴쿠버의 한인사회에서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자발적 결사체로는 한인실업인협회와 한인신용조합을 손꼽을 수 있다. 한인실업인협회는 1983년 잡화점과 식품점을 운영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매년 밴쿠버의 한인업소목록과 인명록을 발간하여 한인교포사회에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인신용조합 역시 1989년에 협동조합의 형태로 결성되었다.

끼리 결사체를 포괄적으로 결성하여 연줄망을 형성하고 상호부조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한인사회는 동업자간의 자발적 결사체가 활성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중국인, 인도인 등 다른 소수민족사회와도 대비된다. 이는 물론 한국인의 이민역사가 비교적 짧고, 인구규모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미 지적인 것처럼 한인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뚜렷이 그 특성을 달리하는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캐나다의 한인사회의 또다른 특징중의 하나는 캐나다 정부의 복지혜택에 의존하고 있는 이민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가족결합이나 연고초청 이민의 형태로 와서 연금이나 각종 보조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인 이민자가 전체 피초청자의 14%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Ministry of Finance and Corporate Relationships, 1997b). 이에따라 이민증대를 반대하는 여론이 광범하게 형성되어, 가족결합이민의 대상자도 배우자와 자녀로 제한되고, 부모 등은 별도의 범주로 하여 이민쿼타가 삭감되었다.

5. 한국인들의 생활양식과 민족정체성

한민족은 오랜 기간동안 민족동질성을 유지하여 왔으며 민족정체성과 유대감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이 이민 1세인 밴쿠버의 한국인들은 현지사회에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대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족정체성을 유지한채 한국문화의 토대 위에서 현지사회의 문화를 부가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유문화에의 집착이 강하여 현지문화에 적응하는 속도에 있어서도 중국인이나 인도인 등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느린 경향이 있다.

Skinner(1957, 1973)의 동화이론에 의하면 현지사회에의 동화는 이민후 몇번째 세대인가 하는 점과 아울러 다음의 조건들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어머니의 인종배경, 민족학교에서의 교육여부, 현지사회식의 이름과 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 현지언어 능통여부, 시민권 소지여부, 부인의 인종배경, 그리고 현지사회의 결사체나 정부조직에의 참여 여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밴쿠버의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캐나다사회에 동화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민 1세대의 구성비율이 높고, 다른 인종과의 혼인이 드물며, 한국식의 이름과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한국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영어구사능력이 부족하고, 현지사회의 결사체나 조직에 대한 참여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다수의 한국인 이민자들이 캐나다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법적으로는 캐나다인이 되었고, 자녀들을 캐나다학교에 보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캐나다사회에의 통합이나 동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밴쿠버의 한국인들이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다: 고유한 생활양식, 명절, 풍습, 의례가 유지되는가? 한국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가? 거주지역이 밀집되어 있는가? 학교, 종교기관, 대중매체와 같은 민족사회조직이 존재하는가? 자발적 결사체가 결성되고 이에 의한 집합행위가 이루어 지는가?

우선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생활양식을 보면, 그것이 한국내 그들 고향의 문화나 이민초기의 삶의 모습과 다르게 변모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고유의 문화와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여지는 많다. 한국어는 거의 모든 가정과 한인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한국식의 가치관과 규범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식 명절은 아직도 지켜지고, 조상숭배의례도 행해진다. 이외에도 가족제도, 혼례, 의례 등에서 한국인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이 편재하고 있음이 심층면접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현지사회에서 고립된 적응형태를 보이는 소수민족은 주생활권이나 거주지가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Balakrishnan and Kralt, 1987; Breton et al., 1990). 밴쿠버에서 대부분의 한인업소들은 특정 거리(Kingsway Street)와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인구의 절대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직 코리아타운이라고 지칭할 정도의 규모를 형성한 것은 아니다. 또한 차이나타운처럼 한인업소들만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것도 아니다. 한인업소들의 밀집은 한인교포들의 정신적 안정감, 세력형성 등에 기여하는 바 크지만, 동시에 한인업소의 영세화를 초래하고 현지사회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한인업소들의 밀집현상과는 달리 한국인들의 거주지역은 비교적 지역적으로 널리 분산되어 있다. 거주지역이 분산되면 소수민족으로서 정치적 세력집단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인사회가 소외되기 쉽고, 아울러 자라나는 세대에게 민족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불리하다(Ko, 1990). 반면, 캐나다 같은 다인종사회에서 거주지역의 분산은 다른 인종들과의 접촉을 촉진시켜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밴쿠버에는 다

른 인종과의 융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 주민위원회(residents' committee)와 같은 다양한 풀뿌리 조직들이 존재한다. 현지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다른 인종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들을 통한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조직들에 대한 한국인 이민자들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다.

소수민족 고유의 학교, 종교기관이나 대중매체의 존재여부는 이민후 현지사회에의 참여와 문화적인 적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민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밴쿠버의 한인사회에서 한글교육에 대한 수요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한국인 이민자의 대부분은 자녀들이 장차 캐나다나 미국내 대학에 진학한 후 전문직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자녀들의 성공이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영어교육과 서구식 가치관 및 규범의 주입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글학교가 1곳 운영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참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현재 밴쿠버에는 기독교 한인교회가 47개소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 규모가 영세하여 캐나다교회를 빌려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과반수가 훨씬 넘게 기독교를 믿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의 기독교 신자비율(22%)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한국에서 기독교를 믿지 않았더라도 이민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인교회에 다닌다. 한국인들을 사귀어 외로움을 덜고, 일자리나 여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현지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이민 2세대에게 한국문화를 주입하고 민족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것도 한인교회의 중요한 기능으로 지적될 수 있다(Kim, 1990). 한편, 밴쿠버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종교의 활동은 비교적 미미하여, 천주교회와 불교사찰은 각각 1개소에 불과하다.

대중매체 역시 한국인들의 적응과 동화, 그리고 민족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각종 문화행사의 주최나 후원을 통하여 한인사회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밴쿠버 지역에는 한글로 발행되는 일간지 1개, 주간지 4개, 그리고 격주간지가 2개 있다. 케이블 TV에서는 주 1회 한국의 소식과 드라마 등이 방영된다. 한국의 TV 드라마나 영화를 비디오에 담아 대여해주는 사업도 성업중이다.

한인교포들은 이민후에도 고국에 대한 미련과 향수를 버리지 못하며, 사회생활, 가족관계, 여가 등에서 한국식의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Lee and Lee,

1990). 이민 1세대가 대부분인 밴쿠버의 한인교포들은 캐나다의 정치나 사회문제보다는 한국의 정치, 사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밴쿠버 한인사회의 경제 역시 한국의 경제상황 및 사회적인 분위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한인사회의 이러한 속성은 대부분의 교포가정으로 하여금 한글신문을 구독하게 만든다. 장년층 이상의 한인교포들은 한국에 관한 소식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와 밴쿠버 지역사회에 관한 주요 정보도 한글로 발행되는 신문을 통하여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언어제약과 문화적 장벽으로 인하여 한국의 TV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여가활동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시 한인교포들로 하여금 문화적 적응을 지연시키고, 현지사회와 일정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생활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수민족사회에서 자발적 결사체가 활성화되면 이는 해당 사회를 결속시키고 민족문화를 계승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밴쿠버에서 결성된 한인조직중에서 이러한 결사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밴쿠버내의 하부지역사회에 따라서는 이민자회, 이민자봉사회, 맏인회 등이 결성되어 새로운 이민자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고 있으나 그 규모가 매우 작고 활동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인 이민자들로 하여금 현지사회에 빨리 정착하고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것은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이민후 사회문화적인 적응과의 상관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은 이민후의 사회활동과 문화적 적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im, 1990).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투자이민과 기업이민의 형태로 밴쿠버에 정착한 한국인들은 경제적인 부와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현지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사회에의 적응이 매우 느리다. 이들은 취미활동이나 학연, 지연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 친목조직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한인사회와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는 경향이 있다.

V. 맺는말

이 연구는 캐나다 밴쿠버의 화교사회 및 한인사회의 형성과정과 이들의 사회문화적

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밴쿠버의 지역적인 특성과 캐나다의 이민정책을 개관하고,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의 증가추세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적응형태를 설명하고, 화교사회와 한인사회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논문에서는 소수민족 이민자의 적응형태를 현지사회에의 참여수준과 문화정체성의 강약에 따라 통합, 고립, 동화, 주변화의 네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 분석틀이 제시되었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은 각각 통합과 고립의 적응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규모는 1996년 현재 27.9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인구에 대한 구성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현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막강해지고 있다. 아울러 생활양식이나 풍습, 의례, 언어, 가치관 등에 있어서 문화적인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족정체성도 매우 강하다. 이러한 사실은 소수민족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문화정체성의 상실이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중국인들의 활발한 현지사회진출 및 문화정체성의 유지와 관련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밴쿠버의 화교사회에 비해서 한인사회는 이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인구규모도 월등히 작다. 캐나다의 1996년 센서스에서는 1.7만명의 한국인이 밴쿠버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김씨 성을 가진 한국인의 숫자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이러한 공식통계의 1.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를 위해 행해진 심층면접조사의 결과는 대부분의 한국인 이민자들이 고유의 문화적인 전통과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화교사회와는 대조적으로, 밴쿠버의 한인사회에는 자발적 결사체가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영어구사능력의 부족,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한국인들은 현지사회진출에 소극적이다. 한국인 이민자들은 다른 아시안 소수민족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활동영역과 민족적 울타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투자이민이나 기업이민의 형태로 밴쿠버에 정착한 후기이민자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캐나다는 앞으로도 낮은 인구증가율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적 견지에서 이민을 계속 수용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 이민자의 밴쿠버 유입은 지속되어 중국인의 인

구규모와 전체인구에 대한 구성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은 밴쿠버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민족의 하나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한편, 밴쿠버의 한인사회가 소수민족사회로 자리잡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이 지속되어 절대인구규모가 커지는 것이 유리하다. 극히 최근에 이르러 한국경제사정의 악화로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전문직이나 사무직종에 종사하던 중산층 이상의 이민이 급격히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상황은 이민자의 규모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의 생업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밴쿠버의 한국인들은 교민이나 한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유학생, 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활동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과 같은 한국의 경기침체상황이 지속되면 밴쿠버의 한인사회도 불황과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볼 때, 밴쿠버의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느냐의 여부는 결국 이민 2세대와 그 후의 세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밴쿠버에서도 이민 2세대와 그 후 세대들의 문화변용은 앞으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문화변용의 형태도 이민 1세대의 경우처럼 중국문화나 한국문화의 토대위에서 현지사회의 문화를 부가적으로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문화적 요소를 점차 대체해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형태의 문화변용은 중국인보다는 한국인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 이민자들은 자녀들에게 고유문화를 주입시키고 민족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국인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서구식의 가치관, 규범 등의 문화요소를 주입시키는 것을 자녀교육과 성공의 지름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Gibson, 1988). 아울러 밴쿠버의 한인사회에서는 민족전통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계승시켜야 한다는 의식이 아직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자발적 결사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한인사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민속행사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민 2세대들이 한인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10-20년 후에는 한인교포들의 문화정체성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현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들의 주류사회로의 동화를 추구하는 경향은,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화교사회에서도 감지된다. 예를 들면, 최근 일부의 중국인 이민자들이 보다 나은 자녀교육을 위해 화교사회를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는 중국인 학생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자녀들이 영어를 습득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만에서 이주해온 중산층 이민자에게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The Korea Times, 1997d).

그러나 중국인과 한국인의 이러한 문화적 적응이 반드시 민족문화의 단절이나 민족 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과 교통수단의 지속적인 발달은 고향과의 접촉 및 교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이고, 이는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로 하여금 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밴쿠버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가깝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결국, 세월의 흐름과 함께 밴쿠버의 중국인과 한국인들은 점차 캐나다의 생활양식과 문화의 요소들을 수용하는 동시에 고유의 문화도 간직하여, 양자가 혼합된 독특한 생활양식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족정체성에 있어서도 중국인/한국인과 캐나다인의 어느 한쪽이라기 보다는 이중정체성(double identity)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밴쿠버에서 아시안 이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결국 지역 사회의 다인종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가 진행될수록 인종차별의 벽은 점점 낮아지고 타인종에 대한 관용이 사회전체의 기준으로 뿌리 내리게 될 것이다. 다인종사회에서는 모든 민족이 자신의 민족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복합사회의 충실한 일원이 되도록 기대된다. 밴쿠버의 한국인들도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간직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민족중심적인 성향을 탈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캐나다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 굳건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밴쿠버 한인사회의 존속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섭 (1997), "한인교포사회의 형성과 사회문화적 특성: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연구," 《社會科學論叢》, 16집,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67-403.
- 김두섭과 김명수 (1997), "싱가포르 화교의 중화의식과 민족정체성," 《中蘇研究》, 21권, 3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19-148.
- Limanonda, Bhassorn와 김두섭 (1997), "타일랜드 화교의 문화변용과 민족정체성," 《中蘇研究》, 21권 3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7-42.
- 외무부 (1995), 《캐나다 개황》, 1995년 9월, 외무부 행정간행물.
- 조사통계국 (1987), 《한국인의 성씨 및 본관 조사보고》, 1985년 인구및주택센서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최협과 박찬웅 (1996), 《세계의 한민족: 미국·캐나다》, 세계한민족총서 3, 통일원.
- 통계청 (1997), 《1995 인구주택총조사 최종 전수집계 결과》, 통계청.
- The Korea Times (1997a), "한국 해외동포 554만명," 밴쿠버 한국일보, 1997년 9월 18일.
- (1997b), "밴쿠버 임금비율 캐나다 전국서 최고수준," 밴쿠버 한국일보, 1997년 9월 20일.
- (1997c), "APEC 경제력평가와 BC주와의 연관성," 밴쿠버 한국일보, 1997년 11월 17-18일.
- (1997d), "씨리, 노스델타, 아시아이민자 신정착지로 각광," 밴쿠버 한국일보, 1997년 11월 26일.
- Balakrishnan, T.R. and John Kralt (1987), "Segregation of Visible Minorities in Montreal, Toronto, and Vancouver," In Leo Driedger (ed.), *Ethnic Canada : Identities and Inequalities*, Toronto, Canada: Copp Clark Pitman, 138-157.
- Baureiss, Gunter (1985), "Discrimination and Response: The Chinese in Canada," In Rita M. Bienvenue and Jay E. Goldstein (eds.), *Ethnicity and Ethnic Relations in Canada*, Toronto, Canada: Butterworth & Co., 241-261.
- Berry, J.W. (1987), "Finding Identity: Segregation, Integration, Assimilation or Marginality?" In Leo Driedger (ed.), *Ethnic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 Toronto, Canada: Copp Clark Pitman, 223-239.
- Berry, J.W., R. Kalin and M.C. Taylor (1977), *Multiculturalism and Ethnic Attitudes in Canada*, Ottawa: Governemnt of Canada.
- Breton, Raymond, Wsevolod W. Isajiw, Warren E. Kalbach and Jeffrey G. Reitz

- (1990), *Ethnic Identity and Equality: Varieties of Experience in a Canadian City*, Toronto, Canad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Burnet, Jean (1987), "Multiculturalism in Canada," In Leo Driedger (ed.), *Ethnic Canada: Identities and Inequalities*, Toronto, Canada: Copp Clark Pitman, 65-79.
- Cheng, Lim Keak (1995), "Chinese Clan Associations in Singapore: Social Change and Continuity," In Leo Suryadinata (ed.), *Southeast Asian Chinese: The Socio-Cultural Dimension*,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67-77.
- Gibson, Margaret A. (1988), *Accommodation without Assimilation: Sikh Immigrants in an American High School*,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Herberg, Edward N. (1989), *Ethnic Groups in Canada: Adaptations and Transitions*, Scarborough, Canada: Nelson Canada.
- Johnson, Graham E. (1979), "Chinese Family and Community in Canada: Tradition and Change," In Jean Leonard Elliott (ed.), *Two Nations, Many Cultures: Ethnic Groups in Canada*, Scarborough, Canada: Prentice Hall of Canada, 358-371.
- (1989), "From Rejection to Acceptance: Comments on the Adaptation of Chinese to Canadian Society," In O.P. Dwivedi, Ronald D'Costa, C. Lloyd Stanford, and Elliot Tepper (eds.), *Canada 2000: Race Relations and Public Policy*, Guelph, Canada: Department of Political Studies, University of Guelph, 323-343.
- Kim, Hyung-Chan (1990), "Korean Christian Churches in the Pacific Northwest: Resources for Korean Ethnic Identity," In Hyung-Chan Kim and Eun Ho Lee (eds.), *Koreans in America: Dreams and Realities*, Seoul, Korea: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177-192.
- Ko, Seung K. (1990), "Korean Immigrants' Political Orientation and Problems of Political Socialization," In Hyung-Chan Kim and Eun Ho Lee (eds.), *Koreans in America: Dreams and Realities*, Seoul, Korea: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237-250.
- Lee, Don Chang and Eun Ho Lee (1990), "Korean Immigrant Families in America: Role and Value Conflicts," In Hyung-Chan Kim and Eun Ho Lee (eds.), *Koreans in America: Dreams and Realities*, Seoul, Korea: The Institute of

- Korean Studies, 72-83.
- Ministry of Finance and Corporate Relations (1997a), *BC STATS: Immigration Highlights*, No. 96-4,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Canada, April 1997.
- (1997b), *BC STATS: Immigration Highlights*, No. 97-1,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Canada, July 1997.
- Ministry of Government Services (1994), *BC STATS: Immigration Highlights*, No. 93-4,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Canada, May 1994.
- (1995), *BC STATS: Immigration Highlights*, No. 94-4,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Canada, April 1995.
- (1996), *BC STATS: Immigration Highlights*, No. 95-4,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Canada, April 1996.
- Siegel, J. S. (1975), *Coverage of Population in the 1970 Census and Some Implications for Public Programs*,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23, No. 56,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1979), *Coverage of the Hispanic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1970 Census*,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23, No. 8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Shin, Eui-Hang and Eui-Young Yu (1984), "Use of Surnames in Ethnic Research: The Case of Kims in the Korean-American Population," *Demography*, 21.3(August), 347-360.
- Skinner, William G. (1957), *Chinese Society in Thailand: An Analytical Histor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1973), "Change and Persistence in Chinese Cultures Overseas: A Comparison of Thailand and Java," In J.T. McAlister (ed.), *Southeast Asia: The Politics of National Integration*, New York: Random House.
- Statistics Canada (1997a), *A National Overview: Population and Dwelling Counts*, Ottawa, Canada.
- (1997b), "1996 Census: Immigration and Citizenship," *The Daily*, November 4, 1997.
- (1997c), "1996 Census: Mother Tongue, Home Language and Knowledge of Languages," *The Daily*, December 2, 1997.
- (1998), "1996 Census: Ethnic Origin, Visible Minorities," *The Daily*, February 17, 1998.

- The Vancouver Sun (1997). "Relationship between the Immigrants and Crime," November 4, 1997, Vancouver: Vancouver Sun Daily Newspaper.
- (1998a). "Ottawa's Aboriginal Count Fails to Tally with Census," January 14, 1998, Vancouver: Vancouver Sun Daily Newspaper.
- (1998b). "Chinatown Welcomes Year of the Tiger," February 2, 1998, Vancouver: Vancouver Sun Daily Newspaper.
- The Weekend Sun (1997). "Hong Kong and Us: A Special Report," May 3, 1997, Vancouver: The Weekend Sun Newspaper.
- Time (1997). "Vancouver: Asia's New Capital," November 17, 1997, Time Weekly Magazine, Canadian Edition.
- Yim, Sun Bin (1990). "Non-Kinship Networks and Immigrant Families in the U.S.: The Case of Koreans," In Hyung-Chan Kim and Eun Ho Lee (eds.), *Koreans in America: Dreams and Realities*, Seoul, Korea: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217-236.

abstract

Formation of the Minority Societies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of the Chinese and Korean Immigrants in Vancouver, Canada

Doo-Sub Ki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and life-styles of the Chinese and Korean immigrants in Vancouver, Canada. Of interest are the immigration policies of the Canadian government and formation of the Chinese and Korean minority societies in Vancouver. Attention is given to estimating the size of the Korean population in Vancouver, utilizing the listings of telephone directory and the proportion of surname Kims in the Korean population. This paper focuses on explaining the distinctive adaptation patterns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and Korean immigrants. A conceptual scheme of socio-cultural adaptation of the minority immigrants, which is hypothesized as a function of the participation to the host society and the cultural identity, is also developed in this paper.

Finding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Chinese and Korean population in Vancouver witnessed a rapid growth since the mid 1980s, when the Canadian government launched the immigration programs for investors and entrepreneurs. It appears that the Chinese and Korean immigrants hold strong ethnic identity and maintain cultural traditions and life-styles of their own. While Chinese immigrants are characterized by active participation to the host society, Korean immigrants tend to confine themselves to the Korean enclave, and thus keep a certain distance from the host society. This appears to be particularly true for the Koreans who immigrated with a status of investor or entrepreneur. As the key force behind the ethnic differences in their adaptation, the role of voluntary associations is stressed. Finally, the future prospects of the Chinese and Korean societies and their acculturation are discussed in this study.

Key words : immigrant, socio-cultural adaptation, minority society, immigration policies of the Canadian government, cultural identity, voluntary association